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 법공양 페이지

# 잘했던 잘못했던 내가 있으니 모두 '내탓'

우리가 왜 부처님 법을 배우려고 하느냐 하면 이것은 부처님 법이기 이전에 진리란 말입니다. 진리! 진리를 탐구하는 겁니다. 진리라는 그 자체를 부처님께서 설파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 자기 완성 때문에. 각자 자기 완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부를 하고 있지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애굽니다. 우리는 자기 완성을 하기 위해 급급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까지 진화해서 올라왔으니 인제는 더 불나위없이 부처님의 그 뜻과 진리를 생각할 때에 그 가운데서 나를 먼저, 나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떨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되고 못되고 그걸 떠나서 자기 완성을 하면 그것은 겁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게 먹고 사는 거라든가 안되고 되는 거라든가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세상이 발각 뒤집힌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는 겁니다. 하나도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 겁니다. 자기 완성을 하게 되면 그렇게 좋은 겁니다. 말로는 어떻게 좋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말로 다 하니까.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도 뒷받침을 잘 해주지 못한 채 또 배우는 사람도 자기의 근본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불법을 배운다고 하면서도 기복으로만 항상 빌고 다녔기 때문에 도대체 자기를 벗어날 길은 천아만야하다는 얘기도.

옛날에도 그랬지만 선지식들이 1년에 한 번씩 육법공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과거의 선지식들이 너무 열 심한 것 같아요. 그랬건만 그 뜻을 못받았고 있지 않습니까. 뜻을 못받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첫째 우리가 촛불을 켜놓을 때 어떠한 심정으로 촛불을 켜는지 그것조차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는 얘이지만 불을 켜놓을 때는 주인공에다가, 오직 한군데다가 몰입을 해서 거기 놓아라. 잘된 거든 잘못된 거든 모든 것을 감사하게 놓고 또 거기에서만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다 전부 내려. 일거수일투족 다 내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저 촛불 켜는 거와 같습니다. 촛불을 켜면 불은 밝게 켜지고 초는 담습니다. 녹습니다. 녹죠?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녹는다는 것은 바로 이 몸 속에 들은 모든 인과성, 유전성, 업보성, 영계성 또는 세균성, 이 다섯 가지의 문제를 다 몸으로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놓지 않으면 녹지를 않아요. 절대로 끊어서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을 해서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칼로 베어서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촛불을 켜놓을 때는 진짜 그 마음의 불을 켜서 내 몸과 같은 초가 다 녹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불도 없고 초도 없죠? 그 도리를 알면은 바로 깨우친 겁니다. 초도 없고 불도 없다.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예전에는 '할!' 하기도 하고 '부처가 어딴습니까?' 하면 주장자라다 치고 또는 '부처가 어딴습니까? 부처님 법은 어떤 겁니까?' 해도 손가락 하나를 들었고, '인도에서 달마스님이 동쪽으로 온 뜻은 뭐니까?' 해도 '저 뜰 앞에 잤나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은 말로 다 할 수

**촛불의 초가 다 녹아  
 초도 없고 불도 없는  
 도리 알아야  
 깨우친 겁니다**

없기 때문에 방편상, 내면지신 말들이 전부 생각을 갈라내는, 파괴하는, 생각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말들을 모두 해놓으셨거든요.

풍뎡간에 가다가 물으면은 '똥 친 막대기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이거는 뭐 말로 할 수 없이 그 일화가 담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누가 아느냐는 얘깁니다. 남전스님이 왜 고양이를 죽였을까? 조주스님은 또 왜 머리 위에다 신발을 얹고서 나왔을까 이런 등등 말입니다. 이 도리를 알면은 그건 정말 부처 아닌 부처가 돼서 그 마음이 일체 보살이 돼서 허공에 꼭 찰 겁니다. 아미.

그런데 요만한 거 가지고 시비를 하고 요만한 거 가지고 싸우고 요만한 거 가지고 용어리가 지고, 요만한 거 가지고 은통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니, 그래 세상을 움직여줬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 가정 한도량도 화합을 못 시켜서 이혼을 하느니 죽이느니 살리느니 하니 그렇게 해서야 어디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



그림 · 최주현

## 업보성 끊는게 아니라 놓아서 녹여야죠 꽃하나 놓는것도 자기마음 갖다 놓는셈

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셨죠. 상대방에서 그렇게 하게 하니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나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바로 놓지 못하는 까닭에 그런 일이 소멸되지 않는 거죠.

다음엔 다기물을 올립니다. 다기물을 놓되, 그 물은 우리 마음의 모든 오욕을 다 깨끗이 씻어내는 그런 청수로서 대용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한 다기물을 한 바다로 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거기다 놓고 간다면 핏물, 고름물, 흉탕물, 또 땅 속에서 흐르는 물 등 전부 모여 바다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한군데다가 몰입해서 보라, 이러한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면 바다를 이룬다. 그 바다의 물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수증기로 올라가서 정화를 해서 다시 내린다. 다시 내릴 때 사람뿐만 아니라 요만한 벌레

하나, 풀 하나도 안 먹는 게 없으니 그것이 바로 평등공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다기물 한 그릇 놓는 것도 어미어머니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다기물 한 그릇을 올리자마자 그 마음의 생수라는 것은 스스로서 항상 자기 마음의 오욕을 씻어내고 욕심과 집착을 씻어내고 이러면서 다기물을 올려놓을 때는 그것이 바닷물을 이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살행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이 시시각각으로 찰나찰나 화해서 나무면서 보살로 화하고 응신으로 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일체 만물만생에게 다 이익이 가게끔 무주상 보시를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또 향을 피웁니다. 보통 하나 아니면 세 개를 쬐는데 갖수가 문제자 아니겠죠. 그 뜻을 알아야죠. 향을 피우는 그 뜻은 양식이라고 합니다. 왜 양식

이 되느냐. 향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모두 그 마음의 향이 있으면 언제나 배가 부르다는 얘깁니다. 배가 고프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 양식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하는 공식이 된다는 얘깁니다. 모든 것에 공식이 된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정돈이 돼서 항상 향내가 난다 이겁니다.

그러니 세 개를 쬐는 이유는 한 꼬비가 세 개가 되고 세 개가 한 개가 되는 까닭입니다. 이 세상은 초월해서 공해서 돌아가니깐 말입니다. 그러니까 갖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즉 삼세가 일체가 되고 일체가 삼세가 되는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삼세를 한꺼번에 일체로 만들어서 놓는 게 한 개를 놓는 것이 되니 결국 세 개가 한 개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자재한 겁니다. 그러니 과거생이나 현재생이나 미래생이나 모든 게 한데 합쳐져서 대천세계가 전부 그 향내를 맡고 다 배가 부르단 얘깁니다. 우리의 마음의 양식이 그렇게 공식으로 할 수만 있다면 이 향 한 개만 꽃아봐도 죽

듯 그렇게 해놓죠? 그건 우주삼세를 전부 한데 합친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보면 삼세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삼세가 다 연결이 돼 있다구요. 과거가 있으면 미래가 있고 미래가 있으면 현재가 있고, 이렇게 연결이 돼 돌아가니까 어떠한 연관성이 있어서 보이면은 꼭 삼세가 이렇게 영켜져 있거든요. 그러니 삼세가 다 영켜져 있는 그걸 끊어안면이 어떠한 병이라도 예를 들어 알아야 할지라도 그 약성이 없어지고 수술해도 그냥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게 참, 연관성이라는 게 아주 극치적 이기도 하고 이거는 원인없는 결과가 없다는 얘깁니다. 모두가 그래요. 에누리 없어요. 아주, 그러니 이 도리를, 이 공양 한 그릇 놓는 것도 닥치는 대로 먹여라 이 소립니다. 닥치는 대로 맛있게 먹여라, 이 말은 밥먹는 걸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 하나 닥치는 대로 가는 거 잡지 말고 오는 거 마다하지 말고 먹여라 위라 이겁니다. 만약에 잘못된 게 있다 이럴때도 이걸 내버릴 생각을 하지 말고 여기도 넣어서 '어떡하면 잘 되게 할 수 있나' 하고 독일 생각을 하세요. 녹이는 과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힘이 드는 것도 아닌데 왜 놓지 못합니까. 나를 보디가드 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수억 겁 전생에서부터 진화시키고 형성시켜온 장본인인데 왜 거기다 놓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까? 다 거기다 놓고 믿고 이렇게 하면 어떠한 거든지 독일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간 강에 갖다 고기 띄우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아, 방생이요? 나는 방생이라는 이름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또 배우네요. 방생을 하는 것도 이젠 스스로 방생이 돼야지, 강제성을 띠고선 그걸 사다가 강에다 놓으면 그건 나중에도 다 죽고 몇 마리 살지 못해요. 그걸 얘기해 볼까요? 일제시대때 사람이 징용을 나갔는데 8.15해방이 되니까 전부 내보냈어요. 그러니깐 그냥 자기 집 찾아가니라고 갈팡질팡 하다가 급하니깐 차 위에도 올라타고 그러다가 떨어져 죽고 발혀 죽고 밀려서 죽고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삼십만 명이 된단 말입니다. 그건 직접 있었던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갖다가 넣어도 자기 있는 자리, 자기가 살 수 있는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생활속의 불교 216

## 남이 주는 것은 언제나 부족하기 마련

해 달라고 하면 벌써 돌이 된다. 그렇게 해서야 아무리 빌어 본들 공덕이 없다.

수만 냥을 내고 불을 켜도 만약 그것이 기복이라면 공덕이 하나도 없고 불을 켜진 일도 없다. 내가 놓자고 부지런히 뛰어서 내 밥을 내가 지어 먹는 것이다. 누가 나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지 깡통 들고 다니면서 도와 달라고 해 보았자 채워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 해답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한다. 육신은 의사와 병원에 의지하고, 가난은 남의 도움에 기대어 해결하려 하고, 운명은 사주 관상쟁이에게 묻고, 교육은 학교에 맡기고... 하는 식이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 방편이 될 수는 있어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옷이 날개라고도 하지만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 옷이 내 몸이 될 수는 없듯이,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는 방책이라도 나 아닌 곳에서 찾은 것은 참 해결책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말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 자신 속에서 병원을, 의사를, 해결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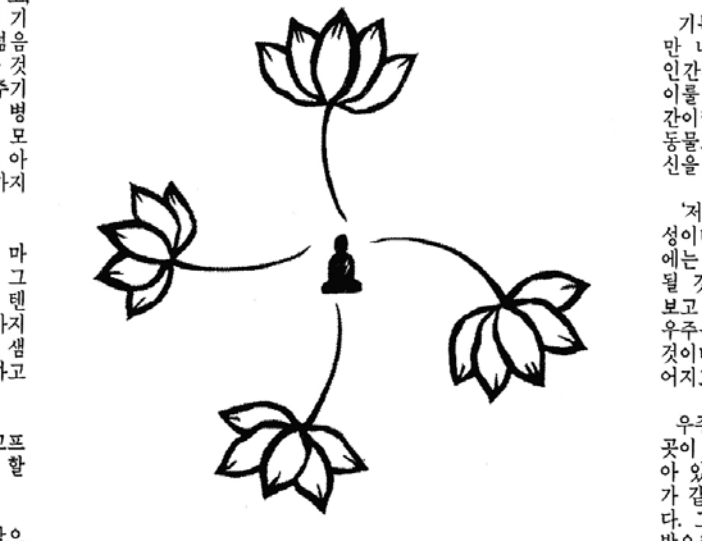
치유책을 찾아야 한다. 밖으로 돌면 무한한 내면의 해결책을 끌어 내지 못한다.

사람들은 여러 것에 의지한다. 부모, 친구, 친척이 혹시 도와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돈·권력·명예·학벌·젊음 따위를 믿기도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밖에 있다. 그러한 것이 도움을 주기도 할 것이고 가령 의사나 약사처럼 병에 대해서 더 잘 알기도 할 것이나 모를지기 밖의 것들에 의지하는 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내면을 관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이 주는 것은 언제나 부족하게 마련이다. 남이 물 한바가지를 줬으면 그 물을 먹는 동안에 또 물을 퍼야 할 텐데 남이 준 것만 먹으면 곧 빈 바가지가 된다. 내 깊은 골짜기에서 나오는 샘물을 떠 먹을 수 있으면 항상 든든하고 당당할 것이다.

남에게 베풀고 살아야지 항상 배고프다고 애원하며 남의 집 머슴 노릇만 할 것인가.

관세를 보살! 하고 부르면 벌써 밖으로 모시는 마음이 된다. 그러기에 주인공! 하고 안으로 들어대라 하는 것이다.



"주인공이시여! 여여하고 원만해서 삼천大千 세계를 두루 다 비출 수 있고 언여하게 능력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안으로 하라.

기복으로만 맹종하고 타락 신앙으로만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광대 무법한 인간의 가능성, 법신으로서의 부처이름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더할 수 없는 고통 동물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저 높은 하늘'이란 어디쯤인가. 복극성이나 삼태성에 사는 생명체들이 보기에 는 지구 쪽이 '저 높은 하늘'에 해당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쪽에서 이쪽을 보고 '하늘 높은 곳에 하느님이 계시서 우주를 지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치 여기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듯이 말이다.

우주 삼천大千 세계가 내 자리 아닌 곳이 없으니 법당에 있느냐 변소에 앉았느냐 내가 그 곳에 있기에 참나가 같이 있고 부처님도 함께 계신 것이다. 그럼에도 주인공 자리를 무시하고 밖으로 돌면서 '더 좋은 기도처가 없다, 더 좋은 스님은 안 계신가.' 하고 찾는 사람들이 많다. 자기 법당을 자기가 갖

고 있고, 그 법당 안에 항상 불이 켜 있고 항상 부처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 것이다.

타의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도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들고 나고 하지 않는가. 참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도 스스로 모른다 하니가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내 몸에 불은 불부터 꺼야 부모의 목은빛도 같고 뿌려놓은 자식들도 건질 수 없다. 그런데 이 도리를 공부할 생각은 없고 기복으로 돌아 귀신 놀음이나 하는 경우가 많으니 제 자신만 귀신이 되고 말면 좋겠는데 자식들까지 귀신 노릇을 하게 하니 딱한 일이다.

이곳 저곳 장소 따지고 이 종교 저 종교 이름 가리고 한다면 전체가 돌이 아닌 도리를 어떻게 감득할 수 있겠는가. 이 신 저 신 찾다가는 이 신, 저 신, 내 신까지 잃어버린다.

협찬: 주인공